

KODEX 고배당 ETF (279530)

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2년12월31일 기준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212-2ETF9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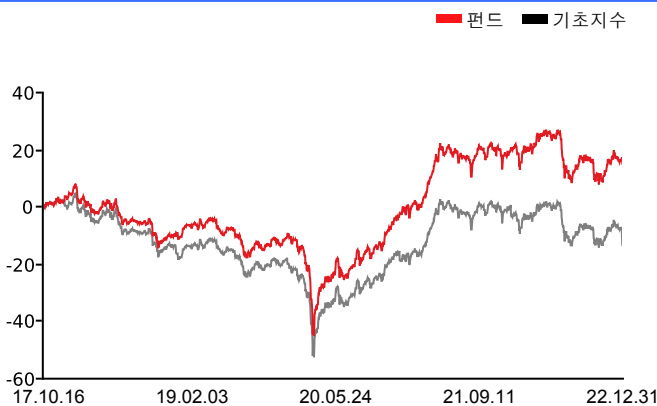
이 투자신탁은 FnGuide 고배당 Plus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.

누적수익률 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 연초이후	연초이후
KODEX 고배당	-3.25	5.49	2.44	-4.25	15.14	-4.25
기초지수	-8.64	-0.27	-3.25	-10.40	-13.38	-10.40
기초지수 대비	5.39	5.76	5.69	6.15	28.52	6.15

※ 분배금 재투자율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수익률 그래프 (%)



※ 분배금 재투자율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업종 비중 (%)

금융업	45.51
화학	14.13
서비스업	10.36
통신업	5.78
건설업	5.50
유통업	4.72
운수장비	3.62
비금속광물	2.28
철강금속	2.20
기타	5.90

상위 10종목 (%)

금호석유	3.62
대신증권	3.39
NH투자증권	3.36
삼성화재	2.98
기업은행	2.93
JB금융지주	2.88
삼성카드	2.84
금호건설	2.83
S-Oil	2.78
DGB금융지주	2.64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2(높은 위험)
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※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지수소개

FnGuide 고배당 Plus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전년도 배당수익률과 변동성 지표를 이용하여 편입 종목을 결정하는 지수입니다. 배당수익률이 기초 유니버스의 상위 30%이면서,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최대 50종목을 편입합니다.

※ 정기변경: 연 2회(6월, 12월)

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고배당증권 ETF[주식]
기초지수	FnGuide고배당Plus지수(2017.09.29)
펀드순자산총액	372.72억원
1주당 NAV	9,318.07원
총 보수	연 0.3%(지정판매 0.01%, 집합투자 0.25%) (신탁 0.02%, 사무신탁 0.02%)
최초 설정일	2017.10.16
상장일	2017.10.17
배당	배당금 발생 시 분기별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신탁회사	신한아이타스
수탁은행	국민은행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
※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100,000주
거래소코드	279530
ISIN코드	KR7279530000
블룸버그 Ticker	279530 KS <Eq>

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2022.10.31	30
2022.04.29	490
2021.04.30	440
2020.04.29	290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